

“공사장 황토는 거친 질감의 한국화가 되고 버려진 나무는 보기 좋은 액자로 변신했죠”



한옥을 짓는 현장에서 잠시 쉬고 있는 목수 박정근씨.

선이고운치과서 ‘힘이 납니다’ 전 **목수화가 박정근**

토목과 출신 13년차 대목
37세에 늦깎이로 전남대 미대에 편입
일을 하며 예술을 배우고
그림 통해 노동의 소중함 깨달아
“집짓기와 그림그리기 다르지 않더라”



‘스다들듯이’

“제 눈에 보이는 세상엔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이 무더위에 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뭉클하고 벅차오르는 아름다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고 돌아 온 저녁,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 그는 한옥을 짓는 목수다. 자신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광주 선이고운치과갤러리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 후 그는 현장인 전북 익산으로 달려가 문득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무를 켜고 다듬는 모습 그대로의 사진도 첨부했다. 전시장에서 품을 잡고 찍은 사진은 어쩔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나무가 된 현장에서 툴을 들고 앉아 있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나무

를 다루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읽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맑이 흥건했다.

“나무를 켜는 화가” 박정근씨가 오는 9월 15일까지 이곳에서 ‘힘이 납니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그는 13년째 대목으로 일하고 있다. 토목과를 나온 뒤 우연히 절집을 고치는 목수를 따라 집 짓는 법을 배우게 됐다. 전국을 떠돌며 집을 짓다가 틈이 나면 무작정 그림을 그리던 그는 지난해 37살의 늦은 나이에 전남대 미술학과에 편입했다.

그의 작업실은 늘 현장이었다. 학교와 공사장을 오가는 나날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레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다. 이 때문에 그림의 소재와 재료도 현장을 닮았

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에도 현장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공사장 주변 황토는 거친 질감의 한국화를 만들어 냈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는 보기 좋은 액자가 됐다.

소재도 정겹다. 강아지를 스다들은 아이의 모습에서는 위로 받는 대상이 강아지인지 아니면 아이인지를 모를 정도의 평온이 감돈다. 함께 일하는 목수의 미소는 해맑고, 거친 노동으로 굼어졌을 주먹은 망치보다 단단해 보인다. 낡은 사진 속 작가의 할머니와 어린 시절 보았던 풍경도 이렇게 여과 없이 화폭에 담겼다.

그의 작품에는 강아지와 소 등 동물이 많이 등장한다. 고향 고흥에서 자라면서



개인전이 열린 선이고운치과 갤러리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화가 박정근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았던 짐승과 사람의 교감을 주로 화폭에 담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 농업고등학교의 사육장에서 힘겹게 갇혀있던 사슴 한 마리를 살려주기 위해 여러 날 고민했었다는 소년의 감성이 화폭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집을 짓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기초 작업이 충분하면 튼튼한 집이 되고, 그림 또한 고민이 깊으면 마무리도 깔끔해요.”

그에게 목수와 화가의 간극은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나무에 선을 그을 때 흔히 먹줄을 쓰는데 한국화도 먹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먹을 즐겨 썼고, 전공도 한국화로 정했다.

‘목수 화가’는 춤도 춘다. 어느 날 현장

에서 사고로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그때 TV를 통해 댄스 공연을 보고 춤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불을 끄고 춤을 추는 모임에 가입해 신나게 춤을 추고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일을 하며 학교에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일과 학업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다. 일을 하며 예술을 배우고, 그림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연장을 잘 다루야 좋은 목수가 되는데, 연장이 나의 것이 되어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문의 062-367-227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코끼리 왕 바바 모차르트를 만나다’

피아노 연주+동화 구연 ... 어린이 눈높이에 딱!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정아 연주

어린이 눈높이에 딱 맞춘 클래식 연주회가 열린다. 피아노 연주와 동화구연이 어우러진 공연이다.

지난 2010년 ‘동물의 사육제’를 시작으로 ‘피터와 늑대’ 등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온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가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코끼리 왕 바바 모차르트를 만나다’를 진행한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1부는 신동 모차르트의 곡들로 꾸며진다. 5살 때 작곡한 소품 5곡과 아이들



에게 잘 알려진 ‘작은별’을 주제로 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또 피아노를 배우

는 어린이들이 한번쯤 쳐보는 ‘피아노 소나타 16번 1악장’을 연주한다.

2부 레퍼토리는 프랑스 작곡가 볼랑의 작품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다. 프랑스 작가 장 드 브루노프의 동화를 모티브로 한 곡으로 부모 잃은 아기 코끼리가 깨끗하게 살을 해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지혜와 가족애를 알려주는 작품이다. 김재현(송원초 5년) 어린이가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를 동화구연으로 들려줘 눈길을 끈다.

티켓 가격 어린이 5000원, 중학생 이상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삶에 여유와 휴식을 주는 분청사기

정이석 도예조형전 ...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현대인에게 여유와 휴식을 전해줄 환경도예와 생활 다기를 선보이는 정이석 작가의 도예조형전을 연다.

도예가 정씨는 답양의 한 시골마을을 아늑한 작업장에서 흙을 만지며 분청사기를 재해석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웅기에서 분청사기 작업으로 이어지는 현대화된 생활도자와 흙, 유약, 장식 기법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상감(象嵌), 인화(印花), 조화(彫花), 박지(剝地), 담명 등 기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분청사기를 전시한다. 문의 062-223-66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대과**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임, 전. 동산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